



同窓會報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 재단법인 청관장학회

제 164 호

2009년 11월 1일

발행인 : 변 주 선

home page :

www.snuesa.or.kr

e-mail :

snuesa@hanmail.net

100-130 서울 종로구 순화동 215 바비엠 1807호 전화 : (02)6399-6500 / (02)720-8116 FAX : (02)720-8117

仁川 세계도시축전 관람 및 인천대교 통과



사진 上 인천대교 중간에서 사장교 주탑을 배경으로 (2009.10.8)

下 동북아트레이드타워 55층에서 (2009.10.8)

사교육비 다이어트 운동

정병모 은사님의 역저 「교육의 함방」을 읽으면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를 일러 '밀줄 짹'이라고 합니다. 1989년 EBS 과외방송에 출연하면서 얻게 된 별명입니다. 당시 교육부장관이셨던 정원식 전 총리님께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펼치신 정책이셨고, 저는 EBS 과외방송으로 하여 일약 유명해졌습니다. 그 바람에 민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이 되었고 15대 국회의원도 지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운동 때 저에게 부어주셨던 사법대 대선배님들의 애정과 후원을 지금도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저는 '허업'으로 느껴진 정치를 즉시 떠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에 하던 출판과 학원교육 사업에 전념하다가, 이번에 인천광역시의 투자를 받아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저소득층자녀들에게 교육복지 실현시키 주자는 취지에서 빙관이 합자한 '인천광역시인터넷교육방송(INCHEON INTERNET BROADCASTING SYSTEM OF EDUCATION)'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별칭을, 영어의 약자 IBSE의 우리말 발음을 따서 '일새방송'이라고 작명을 하였습니다. 일새처럼 싱그러운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소망이 구름일 듯 피어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사교육비 대책이 윤운될 때마다 온라인 학습이 거론됩니다. 인터넷강의는 이제 코스탁시장에서 신화를 이를 정도로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강사의 일방적인 1인 쇼 스타일의



서한성(西漢誠·64)
일새방송 회장

강의로는 사교육의 수요를 줄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초등, 중등생에게는 별무 효과의 전시적 강의일 뿐입니다.

초등, 중등생 특히 저소득층자녀들의 학력을 효율적으로 높여주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새로운 교수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수업의 성공적인 과정이 '학습-시행-평가-교정'이라는 정병모 교수님의 완전학습 이론에 근거하여 일새방송 인터넷

강의는 '도입-개념알기-분장의-평가'로 분절식 구성을 하였고, 인터넷강의를 청취한 후 멘토링 관리교사에 의해 토론식 학습과 평가 및 교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화했습니다. 그리하여 방과후학교에서 멘토링 관리교사가 일새방송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명실공히 학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하였습니다.

사교육비를 없앨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과중한 사교육비를 다이어트 할 수는 있습니다. 학교가 나서고 선생님이 나서면 됩니다. 요즈음 한창 주력하는 방과후학교 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으로 벅차다 한다면 저소득층학생들의 "공부 한끼"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자체나 교회, 성당 등 종교 단체가 나서야 합니다. 훈련된 멘토링 관리교사(고학력 부모,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에 의해 사이버학원 커리큘럼으로 편성된 일새방송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장학 운동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후학교 수업을 실시한다면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대폭 다이어트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인터넷 강의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창회보 발송에 관한 안내

本同窓會報는 每回 15,000부 정도를 인쇄 발송하고 있는 바, 住所不明 등으로 每回 500여부가 반송돼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창회에서는 반송자의 주소 등을 확인하여 재발송하고 있으나, 이는 人力 및 경비(1회 발송비 600만원 정도, 년간 2천여만원)의 낭비가 막심합니다.

이에 앞으로 주소 변경 未申告人과 會費 2회이상 未納人에게는 부득이 會報發送을 중단키로 하겠습니다. 會報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점을 諒知하시고 同窓會 홈페이지(www.snucaa.or.kr)에 게재된 會報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會報는 천재교육 崔容準(數·18) 會長의 厚誼로 費用 全額을 出捐하여 刊行된 것입니다.

■ 「仁川大橋」통과관광과 세계도시축전 관람

- 安相洙 인천시장의 주선으로

사범대학 동창회(회장 卞柱仙)는 지난 10월 8일 회원친목대회의 일환으로 인천송도국제도시에서 개최된 「세계도시축전」관람과 「인천대교」통과 관광을 즐겼다.

사범대학 출신인 安相洙 시장이 벌이고 있는 「인천송도국제도시」는 지금까지의 도시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未來의 도시」모델을 보는 듯 했다.

도시축전의 주행사장은 「도시기업」, 「환경에너지」, 「첨단기술」, 「문화예술」, 「이벤트존」, 「주요테마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청명한 가을 하루를 첨단과학과 함께 보낼 수 있었다.

특히 바다 한가운데에 63빌딩과 비슷한 높이로 2개의 주탑이 버티고 있는 사장교인 仁川大橋는 10만톤급의 배 2척이 동시에 교행 할 수 있다며, 왕복 6차선 21km가 넘는 이 다리는 세계 제5위의 긴다리로서, 다리 한가운데 사장교 주탑 아래에서 보는 바다와 하늘, 아득히 보이는 다리 양끝의 육지는 감탄을 절로 나게 하는 기막힌 풍경이었다.

공식개통 전 특별 혜가로 자동차 전용다리를 걸어본 참가자 모두는 평생 다시는 경험치 못할 추억을 가지고, 영종도 을왕리의 왕산해수욕장에서 생선회와 꽃게탕을 암주삼아 소주 몇잔으로 기분 좋은 하루를 마감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卞柱仙 동창회장을 비롯해 李相國 전부총리, 李敦熙 전 교육부장관, 黃載璣 전 사범대학장, 曹昌燮 단국대 교육대학원장, 서한샘(전 국회의원) 앞세방송 회장 등 80여명이 참석하였다. (서한샘 동문 : 점심 제공, 임향순 동문 : 신종플루예방 손세정제 증정)

■ 동창회 임원들 한국교총 방문

- 李元熙 한국교총 회장 초청으로



李元熙 교총회장의 환영사와 卞柱仙 동창회장의 답사에 이어 참석자들은 교총의 현황과 추진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참석자들 모두가 발언할 기회를 가졌다.

이날의 발언은 참석자 모두가 사범대학 출신답게 우리 교육의 현안, 제도적 문제점, 교총의 역할 등 다양한 교육문제에 대하여 꼭같은 의견들이 있었고, 李元熙 회장은 이 모든 의견들을 직원들과 함께 검토하여 교총운영에 반영할 것이라며, 동문들이 진지하게 의견을 제시한데 대하여 유익함과 고마움을 표하였다.



■ 張忠植(歴.52) 梵恩獎學財團 이사장, 母校 재학생에게 년 4,000만원의 장학금을

단국대학 명예총장이시며, 梵恩獎學財團 이사장이신 張忠植동문은 동창회보 163호에 每年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동창회 관계자를 만나 내년 2월부터 우리 사범대학 동창회가 추천한 모교 재학생 10명에게 1학기 각각 200만 원씩 년간 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동창회는母校 학장의 추천과 동창회장의 확인을 거쳐 내년 2월 말 등록시에 맞추어 清冠獎學金과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梵恩獎學財團은 張忠植 前단국대학교 총장께서 1990년에 재단 기본금 20억원을 출연하여 단국대학의 청학이념에 걸맞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설립하였으나, 최근에는 대상을 단국대생은 물론 타교 학생들과 해외유학생, 특수장애 학생과 심신장애 저도요원 대상 특수학과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 2009년도 제2학기 清冠獎學生 3名에게 장학금 지급

2009년도 제2학기 청관장학생 3명에 대한 장학금을 2009년 8월 20일 본회 사무실에서 김영길 이사가 전달했다.

장학생은 본교 사범대학장 추천으로 선정되었으며, 해당 학생들이 지급받은 장학금은 2학기 등록금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총 8,679,000원)이다.

<장학생 명단>

지병구(물리교육과 4년)	2,889,000원
김희경(독어교육과 2년)	2,611,000원
윤현필(체육교육과 1년)	3,179,000원



■ 卞柱仙(英.60入) 本會 회장

- 「비추미 女性 大賞」 수상

「엘리트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자원봉사에 더 관심을 가지면 사회는 훨씬 아름답고 명랑해질 것입니다.」

삼성생명 공익재단(이사장 이수빈)이 주최하고 여성부가 후원하는 제9회 비추미 여성 대상 혜리상을 수상한 면주선 본회 회장은 지식인들의 사회봉사 참여를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향상을 위해 한 방향으로 자원봉사를 해 지도자들을 대표해 상을 받아 영광스럽다.”며 “자원봉사는 돈과 시간을 무자해서 하는 일인지지만 우리 사회의 발전은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말했다.

혜리상은 비추미 여성대상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



■ 회관건립기금 납입동문

- 全聖鐸(國54)

전 춘천교대 교수

347만원

- 金永植(敎53)

전 교육부장관, 서울대 명예교수

200만원

- 金亨基(佛72)

삼성물산 화학본부

200만원

- 吳京子(英60)

전 영등포중 교장

100만원

- 04서장모임

2004년 교장자격연수를 받으신 동문들의 모임 : 50명

100만원



▲ 全聖鐸(國54)



▲ 金永植(敎53)

횡성부근에 위치한 민족사관학교, 이효석 문학마을, 국순당 횡성 공장을 견학하였다. 민족정신과 창의적이고 협신적인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민족사관학교는 고장 윤정암 동문(교62)의 안내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창조하는 세계적인 학교로 발전하는 모습을 견학하였고, 메밀꽃 필 무렵으로 유명한 이효석의 출생지인 평창에서 흐드려지게 편 메밀꽃길을 걷고, 이효석 문학관도 돌아보며 그의 작품세계를 접하였고, 백세주로 유명한 국순당 횡성공장에서는 전통약주 제조과정 참관을 하였고, 돌아오는 길에 횡성 한우를 맛보는 기회도 가졌다. 하루 종일 같이 동행하는 회원들의 유대도 강화되고, 상큼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가벼운 나들이에 모두들 즐거워하였다.

청량회 송년회는 12월 17일(목) 6시 30분 연화(T.598-8292)에서 있을 예정이다.

「청사로타리클럽」

◆ 경남 고성에서 遇宿

師大 同門들로 구성된 서울

청사클럽(회장 曹昌燮:獨61)

은 한성로타리클럽(회장 劉聚

謨:體66)과 함께 지난 8월 17일~18일 경남 고성에서 주회를 겸한 합동수련회를 가졌다.

고성 요트학교 유흥주 교장의 주선으로 고성군수와 군직원들의 영접 속에 생명농업연구소를 견학하고,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을 거둔 바다에 요트를 띠우고, 유람을 즐겼으며, 해군사관학교와 군함에 승선 관람을 하기도 하였다.

이번 합동수련회에는 장충식 단국대 명예총장, 이상주 전 부총리, 김신일 전 부총리 등 회원 13명과 한성글림회원 22명이 함께 참가했다.

■ 동호회 소식 ■



「청량회」

◆ 가을나들이

청량회(회장 尹龍祐:獨60)의 가을모임은 지난 9월 19일에 회원 33명이 전세버스로 강원도

〈會長 動靜〉

8. 20. 09년 2학기 장학금 지급
31. 09년 후기 졸업식 참석
10. 8. 동문 친선 수련대회 겸 인천도시축전관람 및 인천대교 통과 관광
9. 동문 친선 바둑대회(동창회관)
13. 사우회 참석
29. 청관장학회 이사회 개최
30. 비추미 女性대상 수상

〈동창회 來訪 人士〉 訪問順 (2009. 8. 1.~10. 27)

- 李相周(敎行·56) 전 교육부총리
高潤燮(英·65) 영어과 동문회장
薛原泰(英·77) 경향신문 선임기자
崔埈明(英·60)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權淳庸(敎行·61) 전 중앙일보 이사
俞千根(敎·60) 전 구일고 교장
서한샘(國·64) 일세방송 회장, 전 국회의원

張錫祐

인천대 석좌교수

金在福

전 정인교대 총장

許 烟

전 중앙대 사범대학장

金宗西(敎·45)

서울대 명예교수

林東浩(敎·61)

전 사학연금공단 상무

金英吉(敎·62)

전 성동고 교장

金善陽(敎·53)

전 인하대 교수

林弘造(生·59)

영재교육사 회장

金華永(敎·57)

전 한국능력개발사 회장

鄭阮錦(生·58)

전 교원대 총장

黃載璣(地·56)

전 서울대사대 학장

李恩珍(敎心·61)

전 외국어대 사대 학장

朱瑛世(物·59)

在美 동포

鄭浦喜(體·62)

서울대 명예교수, 스포츠심리연구원장

李鐘皓(敎·59)

세무사, 전 세무대학 교수

吳麟鐸

연세대 명예교수

金信一(敎心·59)

서울대 명예교수, 전 교육부총리

본 회보 제163호 8면에 게재된 홈커밍데이 힘찬자 명단에서 교육과 59人 이종호 동문의 20만원 협찬 내용이 누락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이 동문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편집자)



서울대사대의 뿌리는 「사범학교」: 1894년이고, 서울대학교의 개교 원년은 372년이다.

제163호에 나온 :「서울大學校 元年の 再調整에 관한 一考」를 읽어보니, 異見이 있어 이글을 올린다.

단적으로 말해 「법관양성소」와 「한성사범학교」가 같은 1895년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최근에 발견된 '새史實'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법관 양성소」는 분명 '1895년'에 시작되었으나, 「한성사범학교」는 그 시작이 1894년에 설립된 「사범학교」에서 계승된 것이기에, 현재의 서울대 사범대학의 뿌리이기도 한 「사범학교」가 '1894'년에 시작된 의의는 지대하다.

이제와서, 서울대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단과대학 가운데 가장 먼저 근대 관립학교로 시작된 곳은 「사범대학」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사범학교(1894년) → 한성사범학교 → 관립한성사범학교(일제 강점으로 폐교됨) → 경성고보 사범과 및 교원양성소 → 관립경성사범학교, 이리하여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 합쳐져서, 현재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된다.

새로 찾아낸 '새史實' 이란,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본다면 한성사범학교의 성립은 1895년 5월 1일이고, 사범학교의 성립은 1894년 9월 18일이라 할 수도 있지만, 한성사범학교가 1894년에 설립된 사범학교를 이어받고 있다는 점에서 한성사범학교의 개교년도는 1894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한용진, "개화기 사범학교와 교원양성교육"『대학의 역사와 문화』제3호, 대학사학회, 2006, 102-103)

이 '새로운 史實'로 해서, 「법관양성소」가 서울대학교의 개교원년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잘못된 주장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대학교 개교 원년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면에서부터 다시 생각되어야 하는 것이다.



韓基慶(社會·38人)
서울대 명예교수

그것은,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의 전통이 '1국립대학'으로 되어 있어서, 고구려의 「태학」(372년)을 시작으로 해서(삼국시대의 빼제사는 일실되어 대학의 존재를 알아낼 길이 없고, 신라는 대학이 삼국통일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음) 신라시대의 「국학」→ 고려시대의 「국자감」(후에 성균관으로 격하됨) → 조선시대 및 대한제국시대는 공히 「성균관」(일제 강점으로 인하여 폐교됨) →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로 부활, 재건되었다.

나는 일찍이 「서울대학교 20년사」와 「서울대학교 30년사」의 편찬위원으로서 "서울대학교의 원년이 고구려의 '372년'에 있음"을 직접 글로 써서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다시금, 서울대 총동창회의 요청에 따라서 2년여에 걸쳐 연재하게 된 「서울대학교의 뿌리」 제1회분에 "서울대학교의 연원"이라 하여 고구려 372년이 서울대학교의 개교 원년이 됨을 明記해 놓은 바 있다.

그 내용은 다시금 좀저 「서울대학교의 정신」(1991년 양서원, 개정판은 「한기언 교육학전집」 제33권에, 2006년, 9-13쪽)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나는 "한국국립대학의 전통과 「국립서울대학교」-「국립서울대학교의 법통」 주장의 논거에 관하여—" (2009.2.20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제4호, 182-184쪽)와 임광수 회장(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요청에 따라서, 「국립서울대학교 개교 원년 재조정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결론'은 전적으로 '틀렸음'을 지적한 〈의견서〉(2009.3.15記)를 제출한 바 있다.

이로써, 나는 본고를 통하여 "서울대사대의 뿌리는 「사범학교」: 1894년이고, 서울대학교의 개교 원년은 372년이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會員 入學年度 표시에 관한 안내

그동안 同門 會員들에 대하여 卒業回數, 卒業年度, 入學年度 등이 혼용되어왔으나, 많은 동문들이 入學年度(學番) 위주로 記憶 사용하고 있어, 本會에서도 入學年度 위주로 表記 기호로 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例. 20回 → 63 35回 → 78 48回 → 91

60年卒 → 56 75年卒 → 71 98年卒 → 94

단, 卒業年度의 入學年度 表記는 4년 만에 졸업한 경우임.

休學 등으로 入學年度가 다를 경우에는 연락하시면 정정해 드림.

■ 하계 교수 학사협의회

6월 25일~26일, 경남 거창 및 창녕 일원에서 학장단 및 교수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 교수 학사협의회가 열렸다.



■ 거창군 학생 멘토링



8월 14일~15일, 경남 거창군 대성 고등학교 외 2개교에서 사범대학생 30명과 거창 멘티학생 300여명이 멘토링 활동에 참석하였다.

■ 세계사범대학 선도회의(IALEI) 개최

8월 17일~19일까지 세계사범대학 선도회의가 사범대학교에서 있었다. 세계 6대주 10여 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덴마크, 미국, 브라질, 상가포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캐나다 등)의 교사양성 선도대학 학장단과 교수, OECD/CERI의 교육전문가, 국내 교사양성대학 학장단 및 교수님들, 그리고 세계 교사양성 선도대학 연합회와 함께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으로부터의 대응(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sponse from Education)'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후기 학위 수여식



사범대학은 8월 31일 모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후기졸업식을 가졌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학사학위자 150명, 석사학위자 70명, 박사학위자 30명이 배

출되었고, 이들 모두는 본회 신입회원으로 영입되었다. 이날 졸업식에는 조영달 모교학장과 보직교수 그리고 학부형 다수가 참석하였고, 본회에서는 변주선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학부) 150명	노수정*	김서영*	외국어교육 (영어전공)	협동과정 유아교육
교육학	신범숙*	김주향	이해진	박은진
박동환	권민아	김지아	강신애	(박사) 30명
김윤지	곽승훈	박나라	박지현	교육학과
이승현	배유경	박준성*	최의규	남신동
이은아	송두리	박지운	지구과학과	유현실
이준호	체지우	박진아	사회교육 (일반사회)	김인수
종순남	조석영*	구현화	정숙금	진성희
박현주	박명주	박명주	김대은	양은아
임장현	송효정	송효정	김미희	김장희
이유원	이훈협	정재훈	박선운	김한미
권백일	조수진	김효임	사회교육 (지리전공)	국어교육
김효선	최혜린	호 웨	김정옥	(국어교육)
배소진	최혜민	권순숙	안병운	김근호
최미래	이상호	김성미	고민경	외국어교육 (불어전공)
고은정	김성순	최문경	홍성찬	최희재
김인영	조준희	세정란	윤리교육	외국어교육 (독어전공)
박다혜	한태민*	박하나	곽정훈	임춘택
박보미	이승원	이상호	백수정	사회교육 (일반사회)
장상	조경애	김가람	김상희	손동빈
정화용*	김제희	김영현	안선영	사회교육 (역사전공)
진가연	윤리교육	김민철	정지영	진재관
김지영	이재은	김민연	정연경	사회교육 (지리전공)
이은지	복선미	한가람	진형련	과학교육
정지윤	박재숙	김태연	박은별	과학교육 (화학전공)
영어교육	송노나	박보라	김민우	국민윤리
김대호	박준성	수학교육	김진형	김옥성
배용준	송은영	김완재	류 현	신봉철
이진희	신주의	배 준	박준성	과학교육 (물리전공)
김선정	정인호	윤기호	송은영	최광희
최우성	박용우*	이종화	신주의	과학교육 (화학전공)
황희선*	한성호	물리교육	김수연	진소연
김소영	김현주*	김명기	변지선	김옥성
김환희	김성현	김성현	박소혜	한선영
박선민	이수현	김재혁	황선영	과학교육 (지구과학)
이은주	김준호	박민규	과학교육 (생물전공)	안인수
정지양*	김현우	송찬황	정진선	체육교육
조은영*	이상현	신광식	고학과 (화학전공)	조강희
강나경	이주희	신근희	기상회	진석범
진나영	이예나	김유민	김수연	김은정
진보정	이선영	조윤정	이선영	과학교육 (지구과학)
김성준*	이현민	김나현	박은지	박창근
김은경	김소리	손민정	체육교육	체육교육
김지영	임선영	조 향	이호준	조강희
양시은	김세원	배현준	박용현	진석범
유성은	이혜은	회학교육	양종현	김은정
이지선	조윤정	진 준	신현홍	양광희
정지애	김나현	권구환	제해미	오자왕
오현주	손민정	권오빈*	이희대	김성수
윤근식	윤근식	김준엽	우미령	김춘광
독어교육	김재현	이지은	강명수	김형숙
김재현	김병성	고은미	박미혜	협동과정 환경교육
유민식	문종민	김미정*	박침숙	신자혜
이지현	이지현	김혜령	이승아	김이성
이해나	이세나	생물교육	정하영	수학교육
김소연*	김소연*	류지향	한성재	최수일
김보라	김보라	고법혜	김준홍	과학교육 (물리전공)
불어교육	장정호	장동규	박인천	남경운
		이재영	김 일	
		장진희	최대석	
		김민영	신봉달	

• (*)표시는 입회비 납입표시임.

• 동창회 입회비 미납입자는 동창회보를 못 받아 볼 수도 있음.

■ 教育學科

◆ 학과 교수 등장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던 교육학과 진동섭 교수가 2009년 9월 1일자로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 사제 체육대회 실시

교육학과 사제 체육대회가 10월 16일(금), 서울대학교 기숙사 운동장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매년 가을 교육학과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이다.

◆ 제10차 교육연구 국제학술대회(ICER-10) 개최

교육연구소와 BK21 역량기반교육혁신연구사업단 공동 주최로 2009년 10월 29일과 30일 양일간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제10차 교육연구 국제학술대회(ICER-10)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Glob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in Academic Competence, Evaluation, and Quality Assurance'이며, 기조강연은 Mark Wilson(UC Berkeley대학 교수)와 김성렬(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맡았다. 이 행사는 2000년부터 매 해 개최되고 있으며,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외국학자와 활발하게 학문적 교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

◆ 교육학과 동문회 총회

교육학과는 2009년 11월 19일 6시 호암교수회관에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문회장인 진동섭 교수의 사무총장 김동일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1년간의 동문회 활동에 대한 보고와 함께 동문들의 동정을 살피고 환담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 교육학과 59학번 '졸업 50주년 기념 만찬회'

교육학과 59학번 동문들이 졸업 50주년을 맞아 기념 만찬회를 11월 23일(월) 6시 30분 리츠칼튼 호텔에서 가질 예정이다.

◆ 신년교례회 안내

교육학과는 2010년 1월 2일 오후 3시, 모교 동원생활관에 위치한 '소답마루' 본관 2층(회비:미정)에서 신년교례회를 가질 예정이다.

■ 國語教育科

◆ 2009년 2학기 동문장학금 수여식

2009年 2学期 同門會 將學金 수여식이 지난 9월 1일(화) 모교 국어교육과 학과 창설에서 거행되었다. 국어 교육과 명예교수이자 본회 고문인 李應百(45) 동문이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蘭臺將學金과 故 鄭英淑 동문(54)의 유족이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遷危將學金 수여식을 겸한 이 자리에는 李應百 동문, 李昌得 동문회회장을 비롯하여 모교 교수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교작을 희망하는 우수한 학부생에게 수여되는 '다다將學金'을 비롯하여 2007년 母科 60들을 맞아 전 동문들이 모금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국어교육과 60돌 동문 장학금'의 수여식도 함께 이루어졌다.



◆ 구본관 교수 국어교육과장 겸 국어교육연구소장 취임

2009년 9월 1일 부로, 2년간 학과를 이끈 민현식 교수가 학과장 직을 마쳤다. 새 학과장은 구본관 교수로, 국어교육연구소 소장 및 BK21 국어능력 개발 인재양성사업팀 팀장을 겸직하여 맡게 되었다.

◆ 고정희 선임 교수 부임

고정희 교수가 9월 1일 국어교육과에 새로 부임하였다. 2008년 8월에 퇴임한 김대행 교수의 후임으로 부임한 고정희 교수는 서울대에서 학사·석사·박사를 취득했으며, <윤선도와 정철 시가의 문체시학적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아주대, 충북대, 서울시립대 등에서 강의를 했으며, 2003년부터 올 8월까지 아주대 국문과에서 조교수 및 부교수로 근무하였다. 고정희 교수는 앞으로 국어교육, 고전문학교육, 고전시가교육 관련 과목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한다.



◆ 국어교육과 이옹백 명예교수 서울대 감사패 수상

이옹백 명예교수는 9월 7일 4천 만원을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기탁하였고 9월 18일 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장무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 英語教育科

• 영어교육과 동문회에서는 8월 21일(금) 화성 상록풀프리미에서 친선글프대회를 개최하였다. 고윤섭(65) 회장을 비롯하여 최기남(52), 심명호(54), 이성호(58) 전임 회장 등 모두 10명이 참가하여 건강과 친선을 도모하였으며 최기남 동문과 김은주(80) 동문이 챔피언상과 감부상을 받았다. (참여한 모든 동문들에게는 고윤섭 현회장과 민주선(59) 전회장의 배려로 준비한 건강잡곡 1포대씩 부상 겸 기념품으로 증정)

• 본 동문회에서는 11월 14일(토) 경기도 일산에 소재한 노인 양로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회장단은 1년에 2회 정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영어교육과 65학번(회장:李鍾洪, 전 오주중 교장) 동문들은 졸업 40주년 기념 사운회 오찬모임을 11월 23일 12시에 성남소재 초록향기에서 가질 예정이다.

■ 佛語教育科

◆ 불어교육과,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불어교육과 동문회(회장 徐形來)는 지난 9월 27일 역삼동 LG 타워에서 創科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朴玉范, 郭光秀 명예교수와 동문, 학부와 대학원 재학생 등 모두 120여명이 참석해 불어교육과 50년을 회고하는 영상을 상영, 축시 낭송(襯子孝 시인), 불어과의 산 증인이신 朴玉范 명예교수의 회고담과 당부를 듣고 여흥을 즐기는 순서로 진행됐다. 불어교육과는 50주년 행사 개최와 함께 기념문집 '시지프스의 꿈' 400부를 발간, 배포했는데 3백여 쪽에 달하는 문집에는 은사



님 인터뷰, 동문-재학생들의 글과 추억의 사진첩, 동문 주소록 등이 실려 있다. (행사 사진과 기금 모집 현황 및 행사 결산 보고서 등은 불어과 동문회 홈페이지(www.francais.or.kr)에서 볼 수 있으며 기념 문집이 필요한 동문은 학과 사무실(02-880-7690)로 연락하면 받아볼 수 있다.)

불어과 동문회는 이번에 1백여 동문이 후원금을 내 2천여만원의 기금이 조성됐으며 앞으로 재학생 장학금 지급 및 동문회 활성화를 위한 모임 등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문회는 50주년 행사를 계기로 년 1회 이상 동문 모임 개최, 매월 관악산 등반, 바둑과 테니스 대회 등 다양한 동문 친목 모임을 갖기로 했다.

地理教育科

◆ 후배들을 위한 장학 기금 마련

지리교육과 동문회(회장 최운식)에서는 2008년부터 후배들을 위한 장학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마련된 기금을 조만간 전달할 예정이다.

◆ 지리과 교장·교감·전문직 모임 장학금 모금

서울대 사대 지리과 교장, 교감, 전문직 모임(회장 김진철, 아주중 교장)이 2007년 5월에 첫 모임을 가진 이후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만나 유대를 다지고 있다. 2009년



9월 현재 교장 7명, 교감 5명, 전문직 9명, 해외파견 1명, 예비전문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에는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 1,000만원(최영옥(71), 광양중 교장님께서 내주신 500만원을 비롯하여 18명 모금한 금액)을 조성하여 기부하는 등 모교발전을 위한 역할 수행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에는 교장·교감·전문직 동문들이 모여 모교 발전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최운식 회장님께서 최영옥 교장님께 감사패도 전달하였다.

◆ 2009년 9월 인사 이동

9월 1일자로 최안기(70) 선생님께서 용산고등학교 교장으로, 김성준(81) 선생님께서 학생교육원 연구사로, 이원오(81) 선생님께서 중국 북경 한국학교장으로 영전하였다.

物理教育科

◆ 교외교육 - 관악산 고도별 기압의 측정

10월 16일(금) 12시, 실제생활에서 과학이 어떻게 응용되는지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이를 학교에서의 물리교육과 연결하기 위한 시도를 통해 물리교육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현장탐방을 통해 인성 및 학사 지도를 병행하는 기회를 가졌다.

◆ 졸업논문 포스터 발표

11월 20일(금) 10:00 학부 생의 졸업 논문 최종 발표와 대학원 생의 졸업 논문 중간 발표가 있다. 포스터 발표를 통해 학생들 서로 간의 논문 내용을 알 수 있고 교수님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 물리교육과 동문회

12월 5일(토) 3시 백상갈비에서 있을 예정이며, 회비(당일식비)는 2만원이다.

生物教育科

◆ 동문장학금 지급 (2009년 2학기)

동창회 기금 및 동문들로부터의 장학금이 학부생들에게 지급되었다.

- 하남장학금(김남일 교수 제공) : 1,000,000원 (수혜자 : 08학번 권용희)
- 장남기 교수 장학금 : 동복금 전액(2,500,000원) (수혜자 : 07학번 박현수)
- 정해문 교수 장학금 : 1,000,000원 (수혜자 : 06학번 김윤정)
- 동문회기금 장학금 : 1,000,000원 (수혜자 : 06학번 김설희)

◆ 제4회 생물교육과 동문 배드민턴대회

9월 19일, 서울과학고 체육관에서 동문들이 모여 배드민턴 운동을 통해 서로 간에 친목 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회장 최진복(chjb312@chol.com, 017-254-4760)

총무 백승용(bsylo@hanmail.net, 010-2871-7098)

◆ 전·현직 교장·교감 선생님 동문 모임

일시 : 2009년 10월 14일

장소 : 서초동 교대역 근처 두부

촌식당

참석인원 : 총 23명

연례행사로 학교 및 교육청에 근무하는 동문들을 모시고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



◆ '생동' 지 원고 모집

생물교육과의 과지인 '생동' 지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생물교육과 동문이면 누구나 원고를 살을 수 있습니다. 교육, 학창 시절의 추억, 수필, 시, 기타 소식 등 어떤 내용도 좋으며, 원고는 11월 중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초 출간 예정.

제출처 : 최민석(편집위원장, 학부 3학년, 010-2679-6109)

email: frank1240@naver.com

◆ 제12회 하단배 동문 테니스대회 공지

일시 : 2009년 11월 21일 2:00pm

장소 : 서울대학교 테니스코트

회장 김치경(kimck2005@hanmail.net, 010-3455-3558)

총무 배진호(bb@bnue.ac.kr, 010-4579-1333)

◆ 신년하례식 및 정기총회

일시 : 2010년 1월 8일 6:00 pm

장소 : 상계리제센터 A동 2층 갤러리II (T. 02-538-8866)

(2호선 선릉역 하차 → 지하 연결통로 → 상계리제센터 2층)

地球科學教育科

- 11월 7일(토) 모교에서 지구과학과 설립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다. 이날은 학술발표, 가족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재학생들의 과축제인 '용암제'도 같이 겸했으며, 행사를 마친 후 교수회관에서 식사를 하고 별 관측을 했다. 또한 지구과학과에서는 창학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관람 및 인천대교 통과 관람기

10월 8일 80여명의 사범대학 동문들은 벤주선 동창회장님의 주선으로 '동창회 가을 나들이'로 '인천세계도시축전'을 관람하고, 인천 송도에서 인천 국제공항을 잇는 인천대교를 자동차로 횡단하였다. 서대문에 있는 동창회 사무실 앞에 9시까지 집결하여 김창철 상근부회장님과 임동호 사업담당 부회장님 그리고 동창회 사무원의 안내를 받아 2대의 버스에 분승하여 목적지인 인천으로 향했다. 차창에 스미는 가을의 정취 때문이었을까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한강변의 풍경과 멀리 도심위의 가을 하늘을 보는 즐거움이 어떤 시절 소풍 때의 기분과 같았다.

인천 송도에 도착하여 제일먼저 방문한 곳은 '동북아트레 이드 타워'였다. 이 건물이 완공되면 65층이 되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55층까지 완공되어 있었다. 우리의 방문을 환영하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이 건물 1층 로비에서 벤주선 회장님은 "훌륭한 동문이 시장을 하고 계셔 이곳을 방문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방문 인사를 하였고, 안상수 인천시장님은 "바다를 매워 대지를 조성하고, 그 위에 고층 건물을 지어 인천시를 동남아 몰류센터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번에 송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21km의 교량을 개통하여 동남아 허브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면서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에 왕립해 주신 동문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특히 안상수 시장님은 자신의 리마쉽과 용기는 사범대학에서 받은 교육 때문이라고 하면서 현재 사범대학 동창회의 회장님인 여성 이시고 방문한 동창 회원의 수도 여성이 더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범대학 출신 동문들의 사회적 중요 역할은 여성 동문의 적극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하여 여성 동문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인천을 세계적 도시로 만들어 가는 안상수 시장의 업적을 치하하는 이상주 부총리님과 이돈희 장관님의 축사가 이어졌다. 기념촬영을 하고, 그 전문의 55층으로 올라가 특별히 배정된 안내원으로부터 첨단 전자 시설과 작동을 설명 듣고, 동서남북으로 확장된 송도 신도시와 옛 송도 해수욕장 등을 바라보며 그 때 그 시절의 송도해수욕장을 생각하며 추억에 잠기기도 하였다.

점심은 서한샘 동문께서 '정복궁'이라는 한정식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맛있는 불고기와 술을 배불리 먹고 마셨다. 점심 초대를 해 주신 서한샘 동문은 인터넷 방송국을 설립한 후 회장으로 취임하여 양질의 값싼 중·고등학생용 교육 콘텐츠를 전국으로 방영하는 서민교육의 전도사로 나서셨기에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 주었다.

점심 식사 후에 도시축전 주 행사장으로 이동하여 각국의



曹昌燮 (곽창燮 · 61人)
단국대 교육대학원장

특산물과 우리나라 각 도시의 특산물과 풍물이 전시된 행사장을 관람하였다. 80명이나 되는 회원이 한꺼번에 설명을 들으려니 가까이에서 들을 수 없는 회원들은 자연 뿐만이 흩어지게 되어 다음 이동지를 향해 떠나려는데 한 분이 나타나지 않아 한참을 기다렸다. 2호차에 승차하신 임동호 부회장께서 남은 일정에 대한 소개를 하던 중에 그 분께 한 말씀하시라고 마이크를 드렸는데 우리가 기대하던 미안하다는 말

을 끝내 하지 않고 다른 말만 하고 끝을 맺어서 앞 차에 타고 있던 우리 모두는 폭소를 터트렸다.

촉박한 시간 때문에 방문 예정지를 일부 생략하고 곧장 인천대교로 향하였다. 아직 개통하지 않은 송도-인천 국제공항 간의 인천대교를 인천시에서 제공한 칸보이를 받으며 지나려니 사범대학 동창이라는 것에 대한 긍지가 솟구쳤다. 평소에는 하차할 수 없는 대교이지만 오늘은 도중에 하차하여 사진도 찍고 걸어보기도 하였다. 대교 위에서 남쪽으로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며 인천의 무궁한 발전과 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뵙었다.

인천대교를 지나 왕산해수욕장으로 향한 무렵에는 이미 저녁노을이 드리워지기 시작하였다. 해변에 면해 있는 회집에서 동창회에서 제공한 술과 화를 포식하며 함께 자리한 동문들과 이야기꽃을 피웠다. 불계 물들어 일렁이는 바다를 구경하려는 동문들은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 한 순간 자연과 일체를 이루었고, 이러한 자연과의 일체감 속에서 삽살오오 짹을 지어 탑소를 나누려니 시간가는 줄 몰랐다.

출발이라는 독촉을 받는 순간 가까운 이웃과 더불어 아름다운 추억을 나눌 때부터 사람답게 사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즐거웠던 가을 나들이는 끝이나 귀경길에 여의도에서 일부 동문들이 하차하고, 남은 동문은 서대문에서 하차를 하였다.

아침에 만난 때는 누구인지를 몰라 아는 사람에게만 인사를 나누며 서먹하였는데, 점심을 먹고, 함께 다리를 건너며 사진을 찍고, 저녁을 먹고 나니 모두가 한 집안 식구 같이 느껴졌다. 버스에서 좌석을 같이하였거나 식탁에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지 못하였지만 더불어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많은 사무친 이야기를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들 하는 것이 이번 나들이에서 절감하였다. 동창이라는 경험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는 추억을 눈빛으로 담아내고 있었기에 헤어질 때는 모두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래서 동문 모두가 그리운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이것이 헤어짐의 아쉬움이자 교훈인가 보다.

■ 同門動靜 ■

■ 鄭範謨(教·45入) 한림대 석좌교수

‘교육의 향방’ 出刊

한림대 총장을 지낸 鄭範謨 동문이 한국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향방을 반성하고 그 향방을 결정짓는 기본문제들을 성찰해본 책.



그동안 한국교육학계를 선도하고 후진 교육학자의 육성과 배출에 매진해온 鄭 동문이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해온 한국교육의 환부에 메스를 가하고 있다. 고일대로 꼬인 한국교육의 현실문제를 과감히 밝힘으로써 그것이 문제의 해법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 鄭 동문은 “바보들아, 교육이 나라의 운명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 金英淑(教心·54入) 前 안양대 교수



‘교사와 부모를 위한 특수아 상담의 이해’ 출판

김영숙 前 안양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지난 9월 ‘특수아 상담의 이해’를 윤여홍 아주대 교수와 공동으로 출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재단법인 삼흥학원의 “성음유치원”을 설립 운영 중이다.

■ 李敦熙(教·56入) 前 교육부장관

단국대 석좌교수에

이듬해 전 교육부장관은 최근 단국대 석좌교수에 위촉되었다. 母校 교육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지난 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에 보임한 李 석좌교수는 대통령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朴燦久(國·56入) 동문



한국중등교장평생동지회 연찬회 개최

한국중등교장평생동지회 회장이며 전 서울시교육위원인 朴 동문은 지난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전북 부안군 번산면 소재 학생 혜양수련원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회원 연찬회를 개최하고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생명서를 채택했다.

■ 柳岸津(教·61入) 서울대 명예교수

시인이며 서울대 명예교수인 柳岸津 교수가 신작시집 〈알고(考)〉(천년의 시작)를 출판했다. 수록시 〈알고(考)〉는 “암”이라는 어휘로부터 앞에서 태어났다는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과 가야 김수로 왕의 탄생설화, 새해 첫날 우물을 을 퍼마시는 용암뜨기 풍속, 마을의 지세(地勢)를 보(補)하기 위해 흙으로 쌓는 암봉(閼逢)의 풍수지리까지 두루 담아냈다.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2000명 넘게 만나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를 썼기에 읽는 재미도 더욱 즐거하다. 음양오행과 풍수지리, 조상숭배 등 고유의 민속사상을 마치 할머니가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어조로 풀어냈기 때문이다. 문학평론가 흥용희 씨는 유안진 시인의 민속시를 “민속사를 현재적 삶과의 연관관계 속에서 민속적 전승의 화법에 살어 조근조근 깨워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 서한샘(國·65入) 前 국회의원

서한샘 前 의원은 지난 9월 7일 仁川에서 인터넷 교육방송인 “일세방송(www.ibs.co.kr)”을 개국했다. 이방송은 사교육비를 줄여 가정 경제를 살리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충으로 교육복지정책 실현에 앞장서며,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등 공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천시 도시개발공사, 큐이스타코, 큐유엔무역, 대학학원·한샘학원 등이 공동부자하여 설립한 민관합작회사로써 서한샘 동문이 회장직을 맡았다.



■ 鄭柄善(教·66入) 한국교육학회장



2009 추계학술대회 개최

곽병선 한국교육학회장은 지난 10월 23~24일 양일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지식융합시대의 한국교육”이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대학교수, 교육전문가 등 연인원 1300여명이 참석했고, 학술대회위원장은 나일주(教·72) 서울대사대 교수가 맡았다.

■ 金兌完(教·67入) 계명대 교수

KEDI 15대 원장에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제15대 원장에 김태완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김 원장은 모교 교육학과를 거쳐 미국 미시간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교육정책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상임대표, 교과부 학교자율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대학선진화위원회 위원장 등도 맡고 있다.



■ 李文烈(國·68入) 소설가

광화문포럼에서 조찬강연

소설가 이문열 동문은 지난 9월 9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광화문포럼 조찬강연회에서 안중근 의사에 관한 “암瞽개의 封印”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했다.



안중근 의사 하ternal 의거 100주년을 맞아 조선일보에 “소년 안중근·불멸”을 연재하고 있는 朴 동문은 “안중근은 역사와 시대 속에서 각각의 세력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부각되고, 필요없는 부분은 말살됨으로써 전체적인 모습을 잃고, 여러 갈래로 조각난 안중근만 남았다.”고 말했다.

■ 李元熙(國·71入) 한국교총회장



교원평가제 수용 발표

李元熙 교총회장은 최근 그동안 교원평가제 도입에 미온적이라는 평을 받아온 교총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태도를 명확히 밝혔다.

30여년간 중고교 국어교사로 재직했고, EBS 스타강사로 명성을 날렸던 朴 회장은 한국교총 최초의 평교사 출신 회장이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이나 교사의 권익신장 등 교육계의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이전 어느 회장보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많은 교직자들과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安相洙(體·71人) 인천시장

스카우트연맹 무궁화 금장 수상

안상수 인천시장은 지난 10월 19일 '한국스카우트연맹 무궁화 금장'을 수상했다.

스카우트 무궁화 금장은 연맹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성인 지도자에게 주는 연맹 최고의 훈장이다.

안 시장은 現 스카우트연맹 노를담지역 대육성단체장으로 활동한 공을 인정받았다. 역대주요 무궁화 금장 수상자는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레이건 전 미국대통령, 교황 요한 바오로2세 등이 있다.



■ 高永基(體·72人) Future Consulting 사장

한양직업전문학교 학장 취임

고영기 체육학 박사가 국내최초의 유아교육·사회복지 특성화 학교인 한양직업전문학교 학장에 취임했다.

연락 : 학교 02-711-6114(내선120), 010-6713-8599, drkohanyang@naver.com

■ 高永信(國·73人) 前 경향신문 상무

KBS 이사 겸 이사회 대변인에

고영신 전 경향신문 상무가 최근 KBS 이사회에서 이사 겸 이

■ 停年退職(2009. 8. 31)

朴榮敏(體育·62人)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鄭應根(體育·63人)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製升濟(數學·64人)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朴源詠(英語·65人) 여의도고등학교 교장
 李顯洪(英語·65人) 오주중학교 교장
 李哲元(數學·65人) 태랑중학교 교장
 樹在汎(化學·65人) 영동포여자고등학교 교사
 林圭成(數學·65人) 신림고등학교 교장
 李孝建(歷史·66人) 인천 여자공업고등학교 교장
 朴賢冕(數學·66人) 봄암중학교 교장
 陸昌洙(生物·66人)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金敬禮(家政·66人) 인천 부일중학교 교장
 朴宗助(體育·66人)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장
 申溥淳(英語·67人) 용산고등학교 교사
 金永國(生物·67人) 화원중학교 교장
 金泰珍(體育·67人) 중경고등학교 교사
 朴東鎬(體育·67人) 구정중학교 교장
 處圭錫(英語·68人) 창덕여자고등학교 교사
 崔禹燮(物理·68人) 가원중학교 교장
 千宇尚(獨語·69人) 장승중학교 교사
 林國煥(社會·69人) 금육여자고등학교 교사
 李聖求(國語·70人) 가라중학교 교장
 鄭景善(體育·71人) 망이중학교 교사
 宋末子(數學·72人) 무학중학교 교사
 李恒九(體育·72人) 반포고등학교 교사
 李和春(國語·77人) 등촌고등학교 교사
 崔炳熙(英語·80人) 신서중학교 교감
 金聖千(體育·80人) 관악고등학교 교사
 徐永澤(體育·80人) 서울고등학교 교사

■ 教員人事(2009. 9. 1)

◎ 서울

申正淑(化學·67人) 세종파학교등학교 교장
 尹明淑(家政·67人) 창덕여자고등학교 교장
 朴三緒(國語·69人) 영등포여자고등학교 교장
 李衡謨(數學·70人) 신림고등학교 교장
 崔安基(地理·70人) 용산고등학교 교장
 李完紀(體育·73人) 세현고등학교 교장
 李正珉(數學·74人) 경북고등학교 교장
 金振丑(歷史·66人) 아현중학교 교장
 林建一(生物·66人) 광장중학교 교장
 中南秀(英語·67人) 신현중학교 교장
 李英愛(化學·67人) 문래중학교 교장
 李泰昱(地球·68人) 삼정중학교 교장
 朴再憲(數學·69人) 은곡중학교 교장
 宋在旭(國語·70人) 시흥중학교 교장
 金桔圭(體育·72人) 남서울중학교 교장
 許再煥(物理·74人) 대량중학교 교장
 鄭貞玉(地球·74人) 창덕여자중학교 교장
 李慧順(數學·75人) 신서중학교 교장
 張天(體育·76人) 화원중학교 교장
 李敬任(體育·75人) 개포고등학교 교감
 李喜世(國語·76人) 신목고등학교 교감
 崔廣洛(梅語·77人) 용산고등학교 교감
 韓祐美(數學·77人) 압구정고등학교 교감
 安慶弘(體育·78人) 혜화여자고등학교 교감
 金榮植(歷史·74人) 구암중학교 교감
 俞瑞暉(體育·74人)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 여자중학교 교감
 金承喆(物理·76人) 영등포중학교 교감
 丁漢南(地理·78人) 신사중학교 교감

金弘燮(歷史·73人)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원장

崔東煥(社會·72人)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金聖植(體育·73人) 성북교육청 학무국장
 金榮祚(體育·74人) 교육청 학교체육보건과장
 金鏡萬(物理·75人) 교육청 과학·영재교육과장학관
 金盛俊(地理·81人) 학생교육원 교육연구사
 高孝善(生物·81人) 서울시과학전시관 교육연구사
 吳星煥(地理·83人) 서울시과학전시관 교육연구사
 車熾成(社會·79人) 서부교육청 장학사
 李聖鎬(教育·80人) 강남교육청 장학사
 禹翰卿(體育·81人) 강남교육청 장학사
 羅泰泳(歷史·82人) 세부교육청 장학사
 金洛英(體育·82人) 강동교육청 장학사
 河泰富(體育·82人) 북부교육청 장학사
 金承謙(體育·86人) 성동교육청 장학사
 徐準亨(社會·82人) 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학사
 李敬姬(體育·83人) 교육청 학교체육보건과장학사
 金奎尚(生物·79人) 교육청 과학·영재교육과장학사
 ○ 인천

李鈞九(生物·68人) 인천 남부교육청 교육장
 趙成富(生物·70人) 인천고등학교 교장
 朱相相(數學·72人) 인천 부광고등학교 교장
 崔鍾宇(數學·68人) 인천여자고등학교 교장

화장실 문화

지난 해 중랑천 계방 산책로에 화장실이 생겼다. 최신식 전통에 내부도 깨끗하고 바닥은 않아 높아도 될 만큼 훌륭하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흐른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주민들이 마구 사용하여 훼손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시설이 깨끗하고 관리를 잘 해서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 너무 깨끗해서 차마 어지럽힐 염두가 나지 않아서일까. 시민 의식이 그만큼 성숙한 결과이기를 바란다.

70년대 이후 현대화의 바람을 타고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화장실이 제일 좋아진 것 같다. 우리나라 화장실이 이렇게 개선된 것은 88서울올림픽 행사가 계기가 되었고, 2002년 우리가 4강의 신화를 일으킨 월드컵 대회 때 지금의 화장실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나 한다. 여러 나라를 많이 가보지 못한, 과문(算問)한 땃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화장실이 세계에서 제일이 아님은 한다.

몇 해 전만 해도 공공 화장실에 가려면 반드시 화장지를 준비해야 했는데, 지금은 거의 화장지가 준비되어 있다. 고속도로 휴게실이나 주민 센터에도, 노인복지회관에도 깨끗한 화장지가 준비되어 있다. 내가 자양고등학교 교장으로 있던 1999년만 해도 화장지 문제로 고민을 하였다. 학교에 화장실을 다시 짓고 화장지를 화장실 안에 걸어 두었는데 학생들이 가져가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화장지를 학급별로 배부하여 교실에 걸어두고 필요할 때 사용하게 했다.

30여 년 전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변이 마려워도 억지로 침다가 집에 와서 용변을 보는 일이 있었다. 집에는 훌륭한 화변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학교의 화장실은 시설이 낡고 불결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시끌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전물이나 시설이 좋았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가 가정이나 사회 시설보다 뒤진다. 십 년 전만 해도 학교에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이면 고생을 하였다. 자양고등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을 모아 이 시설을 하려다가 말썽이 있을 것 같아 그만두었다. 지금은 학교에 에어컨 시설도 되어 있고 화장실에 화장지도 비치되어 있다.

화장실 문화가 좋아졌으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일부 음식점 화장실은 아직도 문제점이 많다. 시설도 좋지 않을뿐더러 대개 자물통으로 잠가 놓아 열쇠를 가져가야 한다. 돈을 받지는 않지만 그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다. 그리고 화장실은 좀 멀어진 곳에 있어야 하는데 식당 바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일수다.

동남아 여행을 하면 우리나라 화장실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몇 해 전 중국에 갔을 때 화장실 때문에 고생을



盧載圭(國趙圭·59人)
전 자양고 교장

했다. 얼마 되지 않는 사용료지만 꼭 중국돈으로 내야하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재래식 뒷간이어서 대변을 볼 때면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큰 독을 묻어 놓고 쪼그리고 앉아 용변을 보았는데 변(便)이 떨어지면 변기 속의 물이 뛰어 궁둥이가 젖기 때문에 궁둥이를 들어야 했다. 또 뒤를 닦는 것으로 짚을 사용했다. 짚을 손으로 비벼 부드럽게 하여 사용하였으나 항문이 아파 불편했다.

여름이면 호박잎도 사용했다. 그 뒤로 신문지를 잘라 사용하다가 두루마리 화장지가 등장했다.

옛날 시골에서는 용변을 거름으로 썼기 때문에 사랑방에 가서 짚신을 신거나 새끼를 모다가도 용변이 마려우면 자기 집에 가서 뺐다. 분뇨(糞尿)를 많이 모아두기 위하여 콘크리트로 크게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충청도에서는 이것을 '회사무리'라고 하였다. 그곳에 분뇨(糞尿) 저장했다가 밭곡식에 거름으로 주었다. 불과 반세기 전의 일이다.

화장실에 얹힌 일화 하나—옛날 한양 사는 대가집 젊은 며느리가 돈을 벌 생각으로 의뭉한 시골 사람에게 돈을 받고 화장실을 사용하게 했다. 그런데 이 시골 사람이 용변을 마치고도 나오지 않았다. 조금 있으면 밖에 나갔던 시아버지가 들어온 시간인데, 몸이 달은 며느리는 받았던 돈을 되돌려 줄 터이니 빨리 나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시골 사람이 "이문 없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고 하며 우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며느리는 받았던 돈에 뜻돈을 더 주었다고 한다.

原稿 모집

제165호 동창회보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발간시기 : 매년 2월 1일, 5월 1일, 8월 1일, 11월 1일

2. 원고마감 : 발간 1개월 전

3. 회보형태 : A4(국제판) 16면

4. 모집원고 : 1) 각각 同門會 소식

2) 各市道支會 소식

3) 各동아리, 모임 소식

4) 同門個人 动靜, 人事, 慶弔事

5) 詩, 隨想, 寫真

6) 동창회에 대한 견의사항 등

5. 보낼 곳 : (100-130) - 서울시 중구 순화동 215
마비역 3차 1807호

E-mail-snuesaa@hanmail.net

* 가급적이면 기고자의 E-mail 주소와 사진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비를 납부합시다.

본 동창회는 韓大 전체 동창회의活性화는 물론 各科 同門會, 市道支會 등의 활성화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함께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원간의 동호회 활동, 친목대회, 동문과 동문간의 교류지원방안 등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많은 동문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로번호 : 7521964

· 계좌번호 : 하나은행 221-910002-43405 (예금주 : 변주선)

◆ 회비내역 ◆

■ 자 문 위 원	100,000원 이상
■ 회 장	2,000,000원 이상
■ 부 회 장	500,000원 이상
■ 감 사	300,000원 이상
■ 상 임 이 사	200,000원 이상
■ 이 사	50,000원 이상
■ 일 반 회 비	20,000원 이상
■ 평생회비(회)	200,000원

■ 회비 납부자 명단 (2009. 7. 16.~2009. 10. 27.)

■ 회장단 · 임원회비 ■

신천우(교문, 영어 · 5회) 10만원 이충자(사업부이사, 국어 · 27회) 20만원
서한생부회장, 국어 · 22회) 50만원 이병호(조직부회장, 영어 · 27회) 50만원
김기광(자문위원, 화학 · 24회) 10만원 유자호(설비부회장, 물리 · 28회) 30만원

■ 평생회비(20만원) ■

이응백(국어 · 2회) 김선일(교실 · 16회) 윤석만(수학 · 27회)
배종무(사회 · 6회) 정건모(물리 · 16회) 김원석(역사 · 29회)
문상호(사회 · 8회) 임홍조(생물 · 17회) 정진태(지리 · 29회)
최정숙(교육 · 10회) 최화선(교령 · 18회) 이영숙(지구 · 32회)
원호택(교육 · 11회) 이기태(불여 · 18회) 박정례(화학 · 35회)
정종현(생물 · 12회) 이원우(교육 · 22회) 최호영(수학 · 40회)
문현상(사회 · 13회) 박영오(사회 · 23회) 최진호(독어 · 42회)
조길준(물리 · 13회) 김병욱(국어 · 26회) 양기웅(수학 · 56회)

■ 이사회비 ■

(교육) 장충식(9회) 5만원 신용균(17회) 5만원
이동호(16회) 5만원 흥경만(11회) 5만원 (화학)
박학엽(24회) 5만원 (지리) 조진현(14회) 5만원
(교실) 황재기(13회) 10만원 김재현(32회) 5만원
유덕준(17회) 10만원 김달수(22회) 5만원 (생물)
(국어) (수학) 조영기(49회) 5만원
오윤웅(6회) 5만원 이형재(17회) 5만원 (가정)
박경현(21회) 5만원 박재명(25회) 5만원 김영옥(9회) 5만원
(사회) 한보상(29회) 5만원 (체육)
신용래(9회) 5만원 (물리) 이노연(15회) 5만원 최기숙(23회) 5만원
(역사) 이현숙(10회) 5만원 문정환(12회) 2만원 김여술(11회) 2만원
박남기(8회) 5만원

■ 일반회비 ■

(경사) 박김술(10회) 2만원 조혜옥(8회) 2만원
손율선(단장 · 7) 2만원 강영진(11회) 2만원 서부원(10회) 3만원
(경여사) 이모룡(23회) 2만원 이현택(10회) 2만원
오진경(강 · 3회) 2만원 (교실) 최덕원(11회) 2만원
정세진(본 · 3회) 2만원 이인수(11회) 2만원 김병국(13회) 2만원
장인선(강 · 8회) 2만원 (국어) 박찬구(13회) 2만원 조낙현(14회) 2만원
김은주(강 · 10회) 3만원 이병무(5회) 2만원 김수형(18회) 4만원
(교육) 황기탁(6회) 2만원 이병선(8회) 2만원 김증자(18회) 2만원
이태준(6회) 2만원

이종철(33회)	2만원	김규호(13회)	2만원	탁동근(11회)	3만원
변모은(47회)	2만원	강양희(14회)	2만원	최영락(12회)	2만원
전보영(60회)	2만원	최남규(15회)	2만원	이양선(13회)	2만원
(영어)		김기주(26회)	2만원	이시훈(14회)	2만원
정희수(9회)	2만원	박영배(31회)	2만원	이충숙(15회)	2만원
정기숙(12회)	2만원	(지리)		박안남(16회)	2만원
김영자(16회)	2만원	임덕순(15회)	2만원	장선식(17회)	2만원
박명학(18회)	2만원	이킬오(30회)	2만원	한현량(18회)	2만원
박창만(22회)	3만원	(수학)		최낙준(19회)	2만원
이광복(25회)	2만원	조병원(10회)	2만원	김영애(21회)	2만원
이진구(28회)	3만원	이상석(16회)	3만원	(가정)	
이인기(38회)	3만원	이득우(34회)	3만원	안영숙(9회)	2만원
(독어)		이용현(10회)	3만원	이희주(13회)	3만원
박경세(23회)	2만원	한힘윤(10회)	3만원	조장애(14회)	2만원
(불어)		김무성(22회)	2만원	이산영(15회)	2만원
김기중(22회)	2만원	윤배중(10회)	2만원	(체육)	
정밀삼(22회)	2만원	이기종(13회)	2만원	하영준(13회)	2만원
(사회)		최재진(13회)	3만원	류명수(18회)	2만원
강충환(7회)	2만원	오종식(14회)	2만원	유기동(22회)	2만원
안광화(22회)	2만원	곽희로(18회)	2만원	박수환(23회)	2만원
구관세(30회)	2만원	(화학)		이면형(23회)	2만원
(역사)		이현술(10회)	2만원	송동수(24회)	3만원
송명효(4회)	2만원	탁인자(20회)	2만원	곽경기(28회)	2만원
이남구(11회)	2만원	이인기(28회)	2만원	이태웅(28회)	2만원
김명찬(12회)	2만원	(생물)		이자성(54회)	2만원
문정환(12회)	2만원	김여술(11회)	2만원	이상광(80회)	2만원

* 기금, 회비 납부상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청관대상 후보자 추천

◆ 마감 일자 : 2010년 2월 말

◆ 추천서 양식 : 홈페이지 (www.snucaa.or.kr)

- 청관대상 후보추천서
- 이력서(사진첨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공적 입증 자료

◆ 서류를 보내실 곳 : 우.100-130 서울시 종로구 순화동 215 바비엔3차 1807호

◆ 기타

- 추천서 제출은 우편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본회 소정 양식으로 작성하지 않으시면 접수치 않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관건립기금 모금에 동참합시다.

■ 계좌번호 : 하나은행 221-910002-46305 (예금주 : 변주선)

천재교육의 崔容準 회장을 비롯한 회관련립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동문들께 충실히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모금 총액은 약 31억원이 되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동문들께서는 예수의 과다에 페넘치 마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관 건립 기금 출연자 (2009. 4. 4~2009. 10. 27.)

+ 10만원	• 5만원	• 5만원	+ 20만원	조정일(3회)	+ 5만원
이선호(5)	신철한(5)	〈물리교육〉	손성준(24)	• 5만원	현승명(2)
고주식(8)	윤영재(10)	4,050,000원	박석민(28)	황금민(7)	한승호(3)
조운호(8)	신현세(13)	• 100만원	• 15만원	장일원(10)	한영숙(13)
강태길(10)	〈율리교육〉	신비명(7)	신일호(27)	정근호(11)	조경자(18)
박동원(10)	50,000원	• 50만원	• 10만원	최영락(12)	
이종원(10)	• 5만원	이종희(21)	김우택(14)	한상주(13)	〈체육교육〉
김필수(14)	임선혜(52)	• 30만원	이현재(14)	박인관(16)	6,480,000원
이희원(14)	이승우(19)	이승우(19)	조진현(14)	장선식(17)	
오성호(15)	정근희(23)	김종규(18)	김종규(18)	박점식(20)	
전민기(19)	이성근(24)	이성근(24)	최봉준(23)	〈자구과학교육〉	
최대균(24)	620,400,000원	• 20만원	〈생물교육〉	7,250,000원	
조상재(25)	• 6억원	유홍식(13)	18,500,000원	• 200만원	
이서희(26)	최용준(18)	신동규(17)	• 235만원	이영식(29)	
• 5만원	• 500만원	이상현(18)	• 100만원	• 100만원	
김종길(29)	임향진(17)	• 10만원	오건주(33)	홍순관(16)	
〈지리교육〉	• 250만원	김지태(11)	• 205만원	이인규(18)	
10,350,000원	허현호(24)	송재현(13)	이민호(26)	권혁창(29)	
• 200만원	• 200만원	조길준(13)	• 110만원	• 30만원	
최문식(20)	조승재(20)	근필호(17)	조정재(18)	우종혁(19)	
• 100만원	비노빈(22)	정법진(17)	• 100만원	이규석(26)	
민종기(18)	신우(24)	송정수(28)	총성모(7)	이부현(56)	
안경자(16)	• 60만원	시재현(39)	김동한(8)	• 25만원	
김조명(18)	김호영(15)	• 5만원	김재호(10)	양교석(21)	
노희방(30)	• 50만원	윤상규(15)	김예수(17)	• 20만원	
• 50만원	찰현숙(14)	오수영(19)	정원화(16)	한진희(16)	
이종기(19)	나근현(15)	최감사(23)	우세종(18)	최근년(18)	
• 30만원	김광석(17)	권기준(25)	목청수(26)	양희(17)	
이수임(16)	혁선정(17)	전웅근(31)	• 50만원	유정숙(20)	
황민익(16)	조이남(18)	전웅열(36)	실봉세(17)	권월선(28)	
• 20만원	윤은영(20)	〈화학교육〉	• 20만원	면양일(20)	
강신호(13)	• 30만원	29,350,000원	김은주(8)	김문규(23)	
신종선(18)	남양무(22)	• 1,000만원	김영예(20)	이은현(23)	
나병상(21)	민강주(23)	박종민(10)	박희승(26)	• 20만원	
김달수(22)	김승호(24)	• 820만원	김혜경(27)	〈가정교육〉	
• 15만원	• 20만원	최현호(14)	• 20만원	5,700,000원	
정진우(29)	정봉선(25)	• 200만원	윤복중(13)	• 110만원	
승초열(36)	김민국(26)	서행선(17)	회복주(13)	유영주(14)	
• 10만원	송정성(34)	• 10만원	윤경일(15)	• 100만원	
황능하(8)	• 10만원	• 100만원	김충언(16)	신애수(4)	
모종석(10)	구준희(13)	윤정례(16)	김영국(24)	세예 강(25)	
김원기(15)	제안희(15)	제안희(24)	안해근(25)	• 40만원	
이기석(16)	최철원(23)	이경아(24)	목원근(30)	임경파(21)	
최학준(17)	임경수(25)	회학교육과(15회)	• 10만원	• 30만원	
최희우(18)	김한식(26)	• 50만원	이보현(8)	감동식(8)	〈기타〉
무재근(19)	노정학(30)	김동길(14)	최계숙(9)	김예선(18)	3,200,000원
국태원(20)	김진호(35)	이상진(18)	임여국(10)	조은재(18)	
최석진(20)	이재실(38)	이정민(23)	구성화(12)	손경희(23)	
김주원(21)	유영현(55)	조숙상(24)	장종택(12)		
김민철(25)	• 5만원	김재현(22)	이정희(13)	• 20만원	
문미파(26)	김미자(13)	• 40만원	홍수미(14)	김추란(10)	
김종숙(28)	송두생(14)	김민숙(28)	손영록(17)	이은영(23)	
박재동(28)	윤상례(15)	• 30만원	김영순(19)	• 10만원	
최정덕(29)	정종환(15)	조경희(18)	서명동(22)	김수동(8)	
이민우(31)	박승철(16)	신기한(20)	이미기(22)	안영숙(8)	
최민기(32)	조현숙(18)	남정현(22)	엄민주(24)	이유희(21)	
모기세(33)	김상현(25)	스평숙(24)	이화선(25)	최민진(22)	
신경현(47)	박규현(31)		임윤우(34)	미성2명	

* 기금, 회비 납부상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09 송년의 밤’ 개최

- 일 시 : 2009년 12월 1일(화) 오후 6시,
- 장 소 :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슈맨트홀 (02-753-2170)
- 회 비 : 30,000원
- 행사내용 : ① 모교 은사 모시기
 ② 동창회관 기금 마련 옥션
 ③ 공연 및 여흥
 ④ 기념품 증정

* 참석여부를 11월 20일까지 본회 사무국(02-6399-6500)으로 신청 바람. 입장시에 좌석표를 배부함.